

이종경 목사님과 정옥자 사모님 파송

오래 전 이종경 목사님과 정옥자 사모님이 거주하셨던 골목 끝 2층에 교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그곳에 머물며 예배장소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이 더 이상 예배당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전해듣게 되었고, 그 장소를 개인 기도처로 삼아서라도, 계속해서 예배장소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처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생각과는 달리, 목사님의 지인 분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인터넷에 교회홈피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앙도 없던 목사님 지인이 홈피에 올린 교회의 이름이 바울교회였고,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 이름이 정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얼떨결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다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 했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이후 두분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차 사람들로 가득차고, 얼마 되지 않아 예배당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목사님께서는 교회 장소를 찾아보셨고, 현재 바울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를 경매로 싸게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물을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온 비둘기들로 인해서 난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저분했던 공간을 목사님과 사모님, 이은영 권사님이 날마다 와서, 먼지를 뒤집어써가며 청소를 하셨고, 이후에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성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나가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2008-10년 경에 교회는 전성기 시대를 맞이했고, 20여명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30여명 되는 어른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즐겁게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후 16년 이목사님께서 70세의 나이로 은퇴를 하시면서 제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당시 제 나이 35살의 젊은 나이였기에 이목사님과 사모님께 조금 더 함께 있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100명이 되면 그 때는 떠나셔도 괜찮다며 두 분의 잔류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도 제 생각과는 달리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겨우 겨우 유지하는 정도의 형국이 되어 버려 떠날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그러면서 이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다른 사역지로 파송을 하려고 하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다른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서로간에 건강한 분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저는 저 나름대로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홀로서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50여년간 계속해서 부모님의 돌봄을 받았왔던터라,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해야겠다고 진즉부터 생각했던 터였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역분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분을 위한 좋은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특히 두 분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고, 심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굳건히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6.10.4 여러분의 가족 이목사로부터

주일오전예배 말씀요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방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새롭게 제대로 배워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었고,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지만 제대로 다루려면 10시간도 부족하기에 오늘은 제1계명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1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다른 신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가장 마음을 두고, 내가 무엇에 가장 신경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구역모임

1. 당신은 무엇을 가장 신경쓰니까? 당신의 마음이 가장 가는 곳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2. 일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